

연말 '콜 전쟁'...대리운전 '부르는 게 값'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악용 웃돈 요구 기승...잡은 시비도 같은 구간 요금 천차만별...요금 법제화 등 제도 시급

♣ 회사원 박모(40)씨는 지난 12월 광주 시 동구 충장로 1가 마한지 앞길에서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를 통해 대리운전을 신청했다.

박씨의 목적지인 북구 광주 본촌우체국까지 해당 앱에 게시된 예상요금은 1만 6000원. 하지만 대리운전을 부른 지 10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기사는 오지 않았다. 박씨는 '올려져자 먹기 식'으로 앱에서 책정한 예상요금 보다 4000원 많은 2만원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지 10초도 되지 않아 해당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리기사들이 턱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아예 오지 않으니

어쩔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일부 대리운전기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본래 가격보다 웃돈을 주지 않으면 콜을 거부하거나 거스름돈을 주지 않아 항의하면 욕설을 하는 등 같은 거리를 가는데도 대리운전기사에 따라 요금이 제각각인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대리운전업체가 특수를 누리자 일각에서 이를 악용하는 기사들도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광주 지역 대리운전업체는 90여 곳으로, 약 3000명 이상의 대리운전기사들이 활동하

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 상무지구·금호지구·충장로 등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는 찾는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웃돈을 얹어주지 않으면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같은 구간을 가는데도, 천차만별인 요금을 받고 있다.

서구 상무지구 BYC 앞길(출발)→북구 용봉동 옛 전철우 고향냉면 앞길(도착) 기준, 대리운전기사에 따라 적게는 1만5000원, 많게는 1만8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 콜 전화 호출 맨 기본 요금은 1만원, '앱' 이용 맨 1만2000원(최소 거리 기준)이지만 실제 이용 맨 이 요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소 기본 요금보다 수 천원 이상의 웃돈을 줘야만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들은 미리 책정된 금액에 거리·시간 등을 감안해 추가요금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대리요금이 제각각이어서 이용

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 경찰서에서는 요금 문제·장소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와 이용자 간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사건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들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리·감독할만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등록제·신고제가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등록제로 전환해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김현성 사무국장은 "(광주에) 대리운전 업체가 난립하면서 관리가 안 된다 보니, 요금 시비 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요금 등을 법제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성 기자 young@kwangju.co.kr

너릿재터널 5·18암매장 발굴 착수 레이더 조사 두개골 형상...오늘부터 2곳 굴착

5·18기념재단이 땅속탐사레이더 조사 결과 인체 두개골 형상이 포착된 옛 너릿재터널 인근에서 5·18 암매장 발굴 조사에 착수한다.

5·18재단은 "14일 오전 9시부터 너릿재터널 광주방면 도로와 인근 공원부지를 굴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발굴 지점은 너릿재터널에서 광주 방면으로 도로 1개 차선(폭 4m·길이 4m)와 너릿재공원 주차장 부지(폭 4m·길이 4m) 등 2곳이다.

이 일대는 7.11공수부대가 5·18 당시 주둔했던 곳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암매장 목격담이 잇따랐던 장소다.

최근에도 암매장 제보가 5·18재단에 새롭게 접수되고 있다. 5·18 당시 약초꾼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1981년 너릿재 공원에서 제2수원지로 넘어가는 길 주변 논두렁에서 약초를 캐던 중 사람 유골을 발견했다"며 "당시 너무 놀라 다시 땅을 덮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광주시 등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홍희기자 kimyh@

"아파트 경비원 초소 야간휴식도 근무시간"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휴식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진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건설사 회장 골프장 여직원 폭행 수사 전담청 이관

지역 중견건설사인 N건설 마모(80)회장의 골프장 여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나주경찰이 지난 11일 관련 사건을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제1전담청장청 광역수사대에 "나주서에서 관련 사건 서류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마 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건을 이관받은 이유로는 "건설사 회장 사건은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주경찰에 따르면 마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1시께 나주시 H골프장 '그늘집'에서 여직원 A씨에게 "왜 술집 여자처럼 립스틱을 빨갛게 칠했느냐"고 지적하며 왼쪽 주먹으로 직원의 왼쪽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마씨가 지난 11일 낮 12시 58분 20초부터 55초까지 35초간 A씨를 쫓아다니며, 주먹을 6차례 휘두르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린 장면이 담겨 있다. 여직원 A씨는 마 회장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서충열기자 scy@

환경 시달리던 조현병 50대 빈 집에 불 질러 모두 태워

○... "너를 죽이겠다"는 환경에 시달린 50대 남성이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을 불태워 경찰서행.

○... 13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목포시 한 빈집에 들어가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해 불을 질러 주택 60㎡가 모두 타고 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경찰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씨가 화재현장 인근에서徘徊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궁 끝에 체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날 불을 지른 김씨의 귓속에 '너를 죽이겠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빈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 같다"면서 "집 전체가 타는 화재속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가상화폐 사기 사건 연루

가수 박정운 검찰 소환조사

20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가수 박정운(52)씨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채굴기 운영을 대행하는 미국업체 '마이닝맥스' 회장 A씨가 출자한 계열사를 박씨가 직접 운영하며 행사장 등지에서 가상화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 여름께 미국으로 도주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마이닝맥스 부회장도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마이닝맥스는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 등을 지급했다. 최상위급 투자자들이 쟁전 금액은 1인당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는 6000명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투자금은 2000억원대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규제 한다는데...비트코인에 몰린 인파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 업체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있다. 정부는 규제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진수기자 jeans@

취업실습 나간 특성화고 학생 3명 집단폭행 입건

장흥경찰...피해 학생 부모 "학교 징계 너무 가볍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기도 평택으로 취업실습을 나갔다가 같은 학교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 측의 생활지도가 안이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경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장흥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취업실습을 하던 J특성화고 A군이 지난 달 18일 오후 회사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학생 B군 등 3명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B군 등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인근 공원과 자신들의 숙소에서 A군을 두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고막과 입술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군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학교 측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B군 등 3명에 대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했다.

하지만,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연이어 했는데도 경징계 처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측도 생활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취업실습을 보내기 전 생활교육을 하고 나간 후에도 중간중간 전화로 확인을 하지만 경기도 평택이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종부취재본부장 kykim@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